



탈동성애자들이 오는 11월 4일 LA에서 열리는 '프리덤 마치'(Freedom March) 행사에서 성령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지난 5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프리덤 마치' 모습. [관련기사 2면]



장종택 목사. 성광장로교회에서 찬양예배를 21일 오후 2시에 드렸다.

라이프웨이 “美 복음주의자들, 기본적인 성경 이해 미흡”

‘2018년 미국 신학 연구’ 설문조사 연구 결과 발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와 함께 한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연구 조사 결과인 ‘2018년 미국 신학 연구’(The State of American Theology) 세번째 시리즈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연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과 악, 보상과 처벌, 구원과 종교 텍스트, 교회와 권위에 대한 신념에 대해 조사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거의 7명이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믿었으며 2/3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다. 절반 이상인 57%는 ‘예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라는 데 동의하며, 같은 비율로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첫 번째이자 위대한 존재’라고 응답했다. 66%는 ‘하나님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한 숭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동의했다.

선과 죄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3/4이상이 ‘죄가 영원한 결과를 낳

는다’는 것에 대해 의심했으며 2/3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질 상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서 100% 정확하다’고 믿는 반면, 36%는 ‘현대 과학이 성경을 반증한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64%)이 ‘지옥이 영원히 벌을 받는 확실한 장소’라고 믿었다. 34%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참된 신앙에 보상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58%인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가족과 예배하는 것이 교회 출석의 유효한 대안’이라고 믿었고, 37%는 ‘교회는 그들이 효과적이기를 원한다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위에 관한 질문에서, 10명 중 6명은 ‘종교적 신념이 객관적인 진실 보다는 견해의 문제’라고 응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51%) ‘전통적인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죄’가 되며, 52%는 ‘낙태가 죄’라는데 동의했다. 38%는 ‘성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라고 응답했고, 44%는 ‘성

서의 동성애 행위 비난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리고니어(Ligonier)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특별히 몇 가지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에 대해 우려스러운 측면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52%의 복음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리고니어 측은 ‘복음주의자의 32%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기독교의 교리가 단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길을 잃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수의 본질에 관해서, 복음주의자의 78%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응답했다. 리고니어는 “이같은 믿음은 고대 이교도인 아리우스(Arius)가 주장한 견해”라고 지적하며 “특히 2016년 이후로 결과가 악화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딸의 죽음 앞에서 나의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더니...”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성광장로교회는 21일 오후 2시에 장종택 목사를 초청해 이철훈 담임목사 취임 감사 찬양예배를 드렸다. 장종택 목사는 ‘은혜로다’, ‘다윗처럼’, ‘생명과 바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의 작곡자이고 동시에 찬양 사역자이며 “온유야 아빠야”의 저자이기도 하다. 찬양집회는 장 목사의 간증으로 시작됐다.

이날 장 목사는 3년전 2월 둘째 딸 온유가 ‘항 NMDA 수용성 뇌염’ 희귀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살아난 3개월간의 고통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온유가 회복된 간증을 나눴다. 장 목사는 “아이가 아파서 괴성을 지르면 나도 괴성을 지르곤 했다. 깨달은 것이 인간이 겪는 것 중 가장 힘들다는 거였다.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때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와 온유와 바꿔주세요. 내가 대신 아프면 안될까요?’였다. 내가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였다. 하나님이 죄악 된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마음이 찢어

지셨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천박하게 살았구나’라고 깨달음이 왔다.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 목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전에는 이름만 되면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딸의 죽음 앞에 나의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추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기독교인인지, 종교인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기 힘들지만,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전에는 늘 교회에서 들었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었지만, 딸의 고통의 극점에서 다가온 하나님은 원수와 같았다. 내 인생을 뿌리 채 뽑는 것 같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3면에 이어서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남가주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취임감사예배

지난 11년간 순복음 신앙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렌지카운티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 온 남가주순복음교회가 금번 제2대 담임목사를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과 기도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진유철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일시 : 2018년 10월 28일(주일) 오후 5:00
- 장소 : 남가주순복음교회
- 주소 :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 연락처 : (714)952-0191(교회), (818)521-9200(셀폰)



이임 박재만 목사



취임 이일 목사

주관 :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OC지방회

●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65세는 청년



김영실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2015년 UN은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고려해 사람의 평균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했다. 0~17세는 미성년자, 18~65세는 청년, 66~79세는 중년, 80~99세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다. 18~65세가 청년이라는 UN의 발표는 retire 후 국가의 보조를 받는 노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65세에게 청년의 마음으로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 넣어준다.

또한, retire를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다른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역이라 생각하고 re-tire, 즉 '인생의 낡은 tire를 새로운 tire로 다시(re) 바꾸었다'라고 새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나아가 갈 또 다른 힘도 생길 것 같다.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시간인 지금, 인생의 노을을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는 제2의 인생 역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한다면 65세는 또 다른 의미의 청년임이 틀림없다.

얼마 전 한국에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크게 유행했다.

“육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 칠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 팔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 구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 (중략) ~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이 노래는 장수 시대를 표현하는 재미있고 가슴에 와 닿는 가사와 구수한 가락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100세 인생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65세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뿐 아니라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꾸준하게 해야 한다. 또한, 귀찮다고 혼자 지내는 것 보다는 이웃과 어울려 지내며 무엇 이든지 남이 해 줄 것을 바라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한다. 심리적 건강의 지표 중에도 self-care가 있다. 즉, 자신을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둘째,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더 있을수록 겸손하고 개방된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존경받는 노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웬만한 것은 웃어넘기고 요즘 흔히 말하는 어른이 대접받는 7 up, 즉 clean up(깨끗한 몸과 주변), dress up(단정하고 깨끗하게 옷 입기), pay up(배풀며 살기), shut up(말 많이 하지 말고 경청하기), show up(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 give up(욕심을 버리고 양보하기), cheer up(분위기를 즐겁게 하기)을 시도 해 봄으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

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노력한다.

셋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즉,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며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남의 장점을 보며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불평하기보다는 사소한 일에도 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 수년 전에 또는 수십 년 전에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짚어보자. 내가 상처 줬는데 사과를 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한 번 돌아보자. 나도 부족했듯이 상대방도 부족해서 그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넷째, 좋아하는 취미를 개발하여 자기실현에 힘쓰거나 생산적인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취미도 개발하고 그동안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봉사 활동이나 사회 공동체를 세워 가는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한다. 나이들을 서글퍼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즐겁게 부담 없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도전에 불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빠르게 다가오는 시대에 부응하는 무한 도전을 시작하는 것 만으로도 65세는 영원한 청년일 것이다.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만들어 가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받은 청년일 것이다.

“나이를 더해 가는 것만으로 사람이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사무엘 올만-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1면 '탈동성애자들이' 에서 계속

탈동성애자들이 오는 11월 4일 LA에서 열리는 '프리덤 마치'(Freedom March) 행사에서 성령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동성애,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생활 방식과 정체성을 떠난 이들이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LA에서의 행사는 올해 초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프리덤 마치'를 개최한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프리덤 마치'의 창립자이자 스칼렛이라는 이름의 트랜스젠더였고, 남성 매춘부이기도 했던 제프리 맥콜(McCall)은 "내달 열리는 행사는 문화적 정치적 환경을 감안할 때 가장 신성한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행사에서는 더 많은 연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워싱턴 D.C.에서는 전(前) LGBT 남녀 12명이 연설을 했으며, 이번 로스앤젤레스 행진에서는 약 20명이 연설 할 예정이다. 맥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거의 입법 통과될 뻔했던 'AB 2943'(성적 지향을 변경하려는 각종 서비스를 광고, 제공,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캘리포니아 법)과 함께 지금은 이런 정치의 온상이 되고 있다. 맥콜은 행사가 열리는 주말에 개봉하는 영화 '보이 에라즈드'(Boy Erased)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니콜 키드먼과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이 영화는 침례교도인 부모로부터 '게이 전환 치료'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프리덤 마치' 팀은 애초 10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를 원했으나 모든 분이 단했다고 한다. 맥콜은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새로운 기회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5개월 전 미국 수도에서 최초로 '프리덤 마치' 행사가 열린 이

후 참가자들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로 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다고 한다.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었고 수천 명이 시청했다.

맥콜은 "프리덤 마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가족적인 감각이었다. 전국 모든 이들이 지금 서로 연결되어 다른 승리자들과 함께 서로 만나고 있다"면서 "어떤 복음주의 교회조차도 이 문제에 항복하고 있는 시대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균형을 가져야만 한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다"면서 "LGBT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거야.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두가지의 균형 잡힌 교회를 많이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은혜가 진리를 앞설 것"이라며 간통죄로 불합헌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8장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프리덤 마치' 주최 측은 워싱턴 D.C.와 올랜도, 플로리다에서도 LGBT 라이프 스타일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을 계속 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올랜도 펄스 나이트클럽 이슬람 테러 사건의 생존자인 루이스 하비에르 루이즈는 이번 행사에 대해 CP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자유 행진을 통해 우리는 LGBT 정체성을 밝힌 사람들에게 사랑과 수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러한 행진은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격려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유 할 수 있는 우리의 플랫폼이다"고 말했다.



한인 제작한 기독교 영화, 글렌데일 영화제 감독상 수상해

미주 한인이 제작한 기독교 영화 '3일 주야 (Three days and three nights)' 가 LA 독립 영화제에 이어 글렌데일 인터내셔널 영화제에서도 감독상을 수상해 화제다. 지난 13일에 레일 극장에서 막을 내린 글렌데일 영화제는 전세계 100여 작품이 참가한 국제 영화제이다. '오 마이 베이비'로 알려진 리키

킴의 부인, 류승주씨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광고 모델로 활약중인 아담 정씨가 주연했다. 이 영화는, 한 가정의 아빠가 병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3일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영화를 본 관객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따뜻하고 유머 있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감독상을 수상한 박요스 감독은

기독교 영화가 이례적으로 일반 영화제에서 관심을 얻게 되어 기쁘다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화의 무료 상영을 원하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는 아래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yospark@gmail.com
길이 : 20분 , 한국어 (영어자막)
출연 : 아담정 류승주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동양선교교회 건강박람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양선교교회는 건강박람회를 열고 무료 검진, 특강 및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무료 건강박람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진료와 상담을 받았다. 동양선교교회(김지운 목사)는 21일(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교회 교육관 2층, 북카페, 비전센터 마당에서 건강박람회를 열고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다양한 건강 정보를 나눴다. 이날 건강박람회에서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건강체조 및 운동법을 시연하며 건강의료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안상훈 집사(USC 암전문의)가 '암의 최신치료법'에 대해 특강했다. 또한 의료검진, 암검사를 제공하고, LA카운티 보건국 주최로 선착순 400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간염A,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실시해 바쁜 생활 가운데 건강을 돌보기 힘들었던 많은 한인들에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건강박람회 주최측은 "건강보험이 없거나 체류신분 문제 진료받기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한인들이 도움을 받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한인들에게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리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한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양선교교회는 교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실을 개설했다. 상담내용은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트라우마, 부부상담이며 대상은 이 교회 교인이나 상담 희망자이다. 문의: 김병일 상담사(클라인벨 상담원 레지던트 & Ph.D current) 585-402-1169, 최남수 목사 213-507-2518

[1면에 이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했다.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하는 깨달음이 왔다. 이를 바둑바둑 같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까지 갔다"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운유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운유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평평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에는 현대 의술로는 치유될 수 없는 병이고 임상실험을 하는 대상이었던 운유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에게 들롱나서 결국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에게 들롱나서 형통을 맞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간증을 마쳤다. 이어 장종택 목사는 자신이 작사 작곡한 찬양집회를 이끌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들었으며, 신나는 찬양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한편, '2인 2색 찬양 예배'를 준비한 20일 첫날 교회에서는 이준석 선교사(일본 찬양선교사)가 초청돼 집회를 이끌었다. 토마스 맹 기자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개원예배 드려



개원예배 이후 단체사진 모습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hristian Leaders Academy) 원장 김영대 박사는 지난 10월22일(월) 오후 7시 한민감사교회(담임 심명구 목사)에서 개원예배를 드렸다. 심명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원예배에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LA대표 회장)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1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송정명 목사는 "예수님은 3년 사역을 위하여 30년 동안 준비하셨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하고 출전한다. 목회자들도 양들을 위하여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많은 책을 읽고,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영적 은사를 권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영대 박사가 아카데미를 소개하며 "일생을 교육에 대해 생각하며 살았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박희성 목사(부원장)의 축도로 개원 예배를 모두 마쳤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는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가 있다. 문의) 213-393-3131

미주기독한의사협회 10월 예배 및 보수교육 성료 오는 11월 11일, "목과 요통의 진단과 치료"



예배모임 후 단체사진.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는 지난 14일 주일 오후4시~10시까지 나성소망교회에서 10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5시간 동안 보수교육을 제공했다. 4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박동우 부이사장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이필성 목사(랭커스타침례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윤형진 원장이 "좌골신경통의 진단과 치료"를 강의했다. 오는 11월 11일에는 "목과 요통의 진단과 치료"를 강의할 예정이다. 기독한의사협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4시에 예배와 교육 모임을 갖는다. 문의) 213-500-6393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e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미디어벽,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86>

터키(이슬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심을 깨닫다(2)

필자에게는 항상 주님 앞에 죄스럽고 한 청년에게 몸 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기억이 있다. 마치 아침 닭만 울면 주님을 배반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괴로워했던 베드로 같은 기억이다. 90년대 전도사였던 필자가 Youth를 지도하던 시절 필자를 돕던 교사 중에 대학부소속 피터라는 청년이 있었다. 한번은 부모가 필자를 찾아와 피터를 말려 달라고 부탁했다. 대학 3학년을 마칠 무렵 학교를 1년 휴학하고 선교를 가겠다는 것이다. 그때 필자는 부끄럽게도 선교를 물렸다. 그 청년을 불러 설득했다. '선교는 나중에 대학을 잘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가도 되지 않느냐고.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냐고. 그렇게 전도사였던 필자는 선교소명을 받은 한 청년을 잘못 지도했다. 그렇다. 지금 생각해봐도 잘 못했다. 대학시절 주님의 선교소명을 받고 1년을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주님이 더 없이 기뻐하실 일인 것을 몰랐다. 물론 필자가 후에 선교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가장 먼저 그 일을 회개하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주에서만 매년 60여명씩 파송됐고, 올해는 70여명이 파송 받아 아랍권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다.

구제나 봉사가 아니다.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한다.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거절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생겨난다. 우리교회 청년이 사역하는 지역에서는 현재 청년 7명이 약 9개월 만에 60여명의 현지인 청년들과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와 찬양집회를 하게 되었고, 세례 받는 영혼들까지 생겨났다.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전 아랍권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신앙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본국에서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SM들과 연합해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다. 지금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 하리라."(사19:23)

교회와 자녀들에게도 고백하고 잘못된 전도사의 가르침을 반성했다. 현재 필자의 두 자녀들은 다 대학생 선교사(SM)로 1년간 휴학하고 중동의 나라에 나가 한 아이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고, 한 아이는 아직 사역중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대학청년부 6명이 1년간의 SM 선교사역을 다녀왔다. 그들은 학생선교사가 되기 전 이미 중·고등학교시절부터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2개월간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집트 등의 아랍권 나라들에 가서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며 선교훈련을 꾸준히 받고 훈련이 충분히 된 상태가 되면 선교를 간다. Youth시절부터 선교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대견하고 감사하다.

또한 SM 직전에 1개월간 팀합속 훈련을 하며 영적,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쌓은 후 선교지에 간다. 그렇게 대학생 선교사들이 피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 최전방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전심으로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20대의 청년 학생 선교사를 적극 후원하길 바란다.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은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 대부분 20대 청년들이 이었다. 그들이 이 땅을 찾아와 순교하고 병사하고 일평생 헌신하여 지금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는 것이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학(1) '실패한 행복찾기'

서양의 스승이라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은 서양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철학과 중세철학의 교두보입니다. 아울러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의 두 주류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종합한 기독교 최고의 학자입니다. 하버드대 철학교수인 화이트헤드(Whitedhead)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히포의 주교로, 신학자로, 사상가로, 저술가로, 교회 행정가로 그리고 철학자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학을 정립한 행복학자입니다. 그는 33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예수 안에서 참행복과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때 쓴 책이 행복학(De Beata Vita)입니다. 그의 '행복학'은 회심 후 세례 받기 전 카시키아쿰 별장에 머물면서 사모하는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하며 남기는 일종의 대화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연구들이 철학사와 교회사에서 방대하게 이루어져왔지만 그의 행복론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학은 다소 생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삶을 좀 더 면밀히 살피면 그에게 행복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알게 됩니다.

남서울대 문시영 교수는 행복이 그의 모든 저작들의 핵심 주제라고 설명하면서 인식론, 존재론, 악론, 그리고 역사철학에 이르기까지 행복이라는 주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을 관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리됩니다. 둘째 철학적 탐닉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습니다. 내용은 철학을 권장하는 책이었는데 그는 이 책을 읽고 철학을 통한 행복에 몰입합니다. 그러나 철학지식은 행복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행복을 더 갈망하게 하지만 행복으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물질을 악하게 봅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사상에 종교적 색채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철학적 행복을 찾아보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를 시작합니다.

셋째 신앙적 방황입니다. 그는 마니교의 이신론에 빠집니다. 이교도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감각적인 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씨름했던 악과 고통, 과학과 합리성에 관한 정답을 좇을 민고 전심으로 추종했던 마니교를 떠납니다. 당시 마니교 최고 지성 밀레비스의 파우스트를 만난 후 그는 마니교 허상을 발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마니교 감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작 몇 권의 책을 읽고 타고난 입담으로 지적 허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젊은 날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찾기'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행복찾기는 그를 방황과 좌절로 이끌고 인생을 탕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를 절박하게 했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행복을 찾게 했습니다.

불법 낙태 폭로 영화, 석연찮은 이유로 극장서 상영 중지

불법 낙태 시술의 잔인함을 폭로한 영화 '고스넬: 미국 최대 연쇄살인범의 재판'의 제작자들이 강력한 오프닝 스코어에도 불구하고 수백개의 극장이 이 영화를 내린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 영화의 제작자들이 "영화 관람객들이 극장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커밋 고스넬이라는 필라델피아 낙태 의사가 살아있는 아기 3명과 여자 환자 한명을 죽인 혐의로 중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지난 12일 개봉한 지 3일만에 668개의 스크린에서

1,235천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10위를 차지했다.

19일 이 영화는 미국 국내에서만 총 수익이 2백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200여개에 이르는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 중지했다고 CP는 보도했다. 영화의 프로듀서 겸 마케팅 디렉터인 존 설리반은 데일리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15년간 영화 홍보 사업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영화관에서 의도적으로 밀려났고 영화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반은 상영권 중 일부는 탐 멀티플렉스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5플렉스에서 6위를 했지만 이번 주 영화가 내려졌다. 30플렉스

에서 9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 상영이 중지됐다. 15개의 극장만이 남아있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할로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박스오피스 상위 10위 안에 있는 영화가 상영 중지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스넬' 영화 제작자들에 의하면 영화티켓을 구입하려는 많은 관람객들이 영화관으로부터 "이미 표가 매진되었다"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독교인인 카렌 스왈로우 프라이어는 "미국에서 이 영화가 대중매체들과 미디어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창대장로교회 창립 20주년 및 임직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장로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격려와 기쁨이 되겠습니다.
- 이준준 목사 및 교우일동

임직자 권사 : 김정수 권사, 최순조 권사
강사 : 진석호 목사 (WKPC.LA 노회장)

- **일시** : 10월 28일(주일) 오전 11:00
- **장소** : 창대장로교회 (3630 N. Est., San Bernardino, CA 92405)
- **문의** : 951-966-9191



이준준 담임목사

예배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창대장로교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요한복음 3: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복음 3:1-12

1. 밤에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
 A. 니고데모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산헤드린 공회의원=유대 최고 회의의원)이었으며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선생”으로 호칭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지식과 권력을 겸비한 지도층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왜 밤에 방문 했을까? 그 당시 일반 서민 대중들의 인기가 예수님께 집중되는 상황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자신들의 입장이 위축되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피해의식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심이 노골화되고 있는 실상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오히려 구설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B. 니고데모의 세속적 지혜의 한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온 동기와 이유는 예수께서 그간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거나 듣고 예수님을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추측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22-24에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 주시며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됐을 때 무리가 다 놀라 다윗의 자손(그리스도)이 아니냐 하되,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합입어 귀신을 쫓아 낸다고 비방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0-21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으니 그 누구도 세속적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13-14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심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강조하신 이유
 A. 거듭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다면서 예수님을 제법 아는 척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26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

고 하셨으니 물과 말씀은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물은 곧 말씀이란 뜻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2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했고 요한복음 1:14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하심으로 말씀은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1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셨으니 예수님만이 회개하는 죄를 사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6에는 아담의 원죄(原罪)와 각자의 자범죄(自犯罪)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에 있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며 죄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에 이끌리고 쓰임 받으며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B. 니고데모의 세속적 지식의 미련함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하시는 핀잔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니고데모의 영적 지혜(지식)은 너무나 유치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 입장에서 반문하기를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영적교훈과 니고데모의 육적반응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본문 5-7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하심을 보아 영적 교훈을 육적 의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100여명의 신도가 모이는데 새로운 목자로 A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부임 첫 주일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같은 본문과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매 새벽 기도회 때도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다음 주일과 그 주간에 그 설교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교인들이 수근거리다가 장로님을 찾아와서 “A목사님은 설교를 그것밖에 못하나 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겠느냐?”며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좀 바꾸어 해주실 수 없느냐?”고 권면해달라 했고, 장로

님께서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며 부탁을 드렸더니 “네!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해보겠습니다.” 했기에 장로님께서 교인들에게 내가 말씀 드렸으니 설교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두가 기대 가운데 모였는데 그날도 목사님은 요한복음 3:1-12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기 바쁘게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더니 제직들이 모여 안되겠다며 A목사님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나 보다 하면서 한주간 기회를 더 드려봐서 설교가 끝내 바뀌지 못하면 내어 쫓아 버리자고 결의하고 목사님께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일에도 A목사님은 똑같은 본문과 제목의 설교로 더욱 강변을 토로하였는데 바로 그 때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통곡하며 비로소 회개 역사가 터져 나오더니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완약했던 심령들이 깨어지고 녹아지며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강단으로 올라와 목사님을 붙들고 용서를 빌며,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완약하고 교만해서 건방지게 목사님을 내어 쫓으려 했다며 목사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며 모두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음주부터 양육을 위한 설교로 다음에는 신앙 성숙과 봉사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설교로 차츰 발전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34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하심대로 A목사님은 그 교회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불들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3. 성령으로 난 사람
 A. 성령의 존재와 역할
 로마서 8: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하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립니다. 요한복음 14: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했는데 성령의 역할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B.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 받다가 천국 가게 됨
 본문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보면 죄인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세속적 지혜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방법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 보았기에 요한복음 7:50-51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입장을 두호(斗護)하는 말도 했고 요한복음 19:39-40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했으니 니고데모도 그 사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오후 6시 / 동부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OPEN HOUSE
November 1, 2018 @ 7pm



ACSI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청원 뉴욕대회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청원 뉴욕대회 개최 돼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청원 뉴욕대회가 15일 오후 2시 45분 UN 본부 부근 저팬사이언티피크관에서 유엔세계고아의 날제정추진위원회 주최로 한일 정계 및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엔 인권선언 70주년과 공생원 90주년을 기념해 '아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목표시, 전라남도, 고치시, 고치현,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또 한국 사회복지법인 유학자공생재단과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 협력 단체로 참여했다.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제창자인 윤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생원이 위치한 목표의 바닷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UN에 세계 고아의 날을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고 그 바람을 담아 이곳까지 오게 됐다"면서 "세상 모든 외로운 아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한 세계 고아의 날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 회장의 아버지 윤치호 전도사는 1928년 목표에 공생원을 설립했고 결혼도 공생원에 봉사를 왔던 일본인 여성 타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와 하게 된다. 생전 윤치호 전도사는 한국 전쟁 이후 고아들의 식량을 구하러 나간 뒤 실종됐고, 윤학자 여사는 고초 속에도 3천명의 고아를 길러냈고 병으로 56세의 나이에 소천했다.

신상남 공생복지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어 이름 '타우치 치즈코', 한국어 이름 '윤학자' 여사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실천자로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다"면서 "고아 없는 세상을 꿈꾸신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서라도 우리를 모든 나라의 마음과 힘을 합쳐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UN 세계 고아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 이 일이 곧 공생원 90주년에 이루어 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생원

90주년에 대한 축하 메시지는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웨슬리안홀리네스교단 요도바시교회 주관목사), 벳쇼 고로(유엔 일본 대사), 이인호(전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 니카이 토시히로(일본 중의원의원), 셰릴 로베슨 피고트(스타재단 창설자) 등이 전했다. 미네노 목사는 "히브리서 13장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면서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은 단순하고 윤학자 여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하다. 사랑과 은혜와 힘이 충만한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세계 고아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포럼에서는 오준전 UN한국대사가 '공생의 90년을 UN 세계 고아의 날로'라는 제목으로, 이어 헤더워 음타바 재영 말라위 고등 판무관이 '말라위의 아동권리 및 고아보호'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사정상 행사장에 오지 못한 후쿠이 테루 일본 중의원의원은 '세계 쓰나미의 날 제정으로부터 본 공동체안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로저 피고트 스타재단 목회이사는 "스타재단은 매년 11월 둘째 월요일은 UN 세계 고아의 날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억5천만 가구의 시청자들이 있는 26개 TV프로그램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원 결의문'을 채택, △어린이는 축복 속에서 태어났으며 국적,인종,종교문화 등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사랑으로 양육돼야 한다 △부모의 보살핌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국가는 입양문화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천재지변이나 질병, 국가간의 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고아에 대해서는 구호기관의 특별원조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등을 UN에 촉구했다.



PGM 제4차 세계대회가 열렸다.

세계 전문인 선교대회 개최

제4년마다 개최되는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인 선교대회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필라 안디옥교회 (호성기 담임목사)에서 열렸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세계 전문인 선교대회는 '지역교회를 통한 전문인 선교사를 세우자'는 주제로 KIMNET (Kingdom Inter-Mission Network)의 11차 열방을 품는 선교전략 기도성회와 함께 개최됐다. 이 선교대회에는 C국, Ky국, E국, T국 등 보안지역을 비롯해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일본, 한국, 영국 웨일즈, 케냐, 크로아티아, 북미주 등 전세계 3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PGM 선교사님들과 KIMNET 소속 목회자 및 선교사 총 237명이 참석했다.

대회 첫날인 11일 저녁 집회에는 KIMNET 이사장인 한기홍 목사(LA 은혜한인교회 담임)가 '믿음의 계산법으

로 사역하자', 12일에는 KIMNET 공동회장인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가 '하나님의 꿈', 마지막 13일에는 김홍운 목사(버지니아 열린문교회 담임)가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매 저녁집회에는 400명 이상의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이 참석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선교사적 삶을 살 것을 다스리면서 되새기며 결단했다.

또한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된 선교사집중훈련에는 선교사 후보생 40여명이 참석해 PGM 핵심가치 및 선교현황 및 전략, 평신도, 전문인 리더십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했고 'All nation church, Antioch city church, 타문화 전도'에 관한 현장 실습을 받았다. 마지막 날 10월 14일 주일예배 시간에는 훈련생 중 8명이 수료했고, 36명이 PGM 전문인 선교사 파송됐다.

교회 선교 교회

<p>LA 지역</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말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축복을 받자</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p>	<p>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p> <p>씨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p> <p>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말예배 - 버클리대학교(1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시애틀빌딩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복음화하며, 이단기정음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중하는 교회</p> <p>시애틀빌딩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배 오전 6:20</p> <p>한현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지용덕 담임목사</p> <p>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p>	<p>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7: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c.org</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토)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0:5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0-7240 Email: j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있습니다)</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0:3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월-토)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정세훈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se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요식점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배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p> <p>곽건섭 담임목사</p> <p>예은장로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박은중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p> <p>김종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매달린예배) (스케배설)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는 교회 깊은 믿음, 마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6: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p> <p>김 신 담임목사</p> <p>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초·중·고 사역, 장학 사역, 심자 사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중·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김은목 담임목사</p> <p>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을 행하는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p>	<p>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영광교과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영광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00(토) 오전 6:00

김승목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희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채널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15
T. (818) 383-8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한기연-한교총, 합치기로... 11월 중 통합총회



지난 8월 17일 한기연 통추위원장이 권태진 목사(왼쪽)와 한교총 통추위원장이 신상범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양 기관의 통합을 선언한 뒤 약속하던 모습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과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전계현·최기학·전명구·이영훈 목사, 이하 한교총)이 기구 통합을 합의, 11월 중 통합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미 지난 8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선언했지만, 이후 조직 운영 방법 등에서 이견이 생겨 연내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한기연이 차기 총회 일정을 오는 12월 첫주로 확정하면서, 그 같은 예상은 더욱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양측 지도부가 만나 '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견해를 달리했던 '대표 구성'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한기연

은 1인 대표회장을, 한교총은 3인 대표 회장을 주장해 왔다. 결국 3인의 공동대표를 뽑고 이들 중 1인이 대표회장을 맡는 것으로 절충했다. 한기연 관계자는 "이제 통합은 기정사실"이라고 했다. 한기연은 이달 말까지 받기로 했던 차기 대표회장 후보등록도 보류한 상태. 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내부 결의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한교총도 마찬가지다. 법인은 한기연의 것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들은 한기연과 한교총을 합친 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도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해 '보수 단일 연합기관'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카이캠, 141명에 안수... '개그맨' 표인봉, 목사 되다



목사안수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카이캠) 제38회 목사 안수식이 22일 오전 분당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승욱 목사)에서 진행됐다. 총 141명이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1부 예배에선 마펏택 목사(새순교회 담임)가 '목회적 돌봄'(골로새서 1:28-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마 목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며 "따라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평신도를 목회자로 세워야 한다. 목사는 그들이 각자의 가정과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여야 한다"며 "결코 평신도를 목사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선 안 된다. 그들을 부흥의 수단이나 교회의 관리자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권면했다. 이어 조예환 목사(부천 갈보리교회 담임), 브라이언 박 목사(CTS폴링갯 진행

자, 선종철 목사(하나비전교회 담임)의 합심기도 후 목사안수식이 서약과 안수례, 안수기도, 공포, 축가, 권면 및 축사, 목사안수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면사를 전한 김영욱 총장(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은 "오늘 안수를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 인간적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과 충만함으로 사역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안수받은 목회자들을 대표해 인사한 이경택 목사는 "떨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목사로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역할 것"이라고 김미애 목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안수식은 진희경 목사(제38회 대표)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한편 이날 개그맨 표인봉(표바울) 씨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 눈길을 끌었다. 김진영 기자

광주서 첫 쿼어축제 열려... 반대 집회에 3만명 운집

광주퀴어문화축제가 21일 전라남도 광주 동구 5·18민중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렸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금남로4가에선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등 현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철폐 및 쿼어집회 반대 국민대회'가 진행됐다.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NAP가 쓰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할 수 있다며 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또 NAP가 "국민을 사람으로 대

체했다"며 이것이 이슬람 난민의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또 쿼어문화축제에 대해서 "동성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쿼어문화축제를 공개된 광장에서 허락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무릇 축제란 대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쿼어문화축제는 그 동안 다른 도시에서의 모습에 비춰볼 때, 도심광장과 시내 곳곳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성적으로 문란한 물건들을 전시·판매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수많은 법적·도덕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가족들. ©US EMBASSY, BERLIN

마이크 펜스 부통령 딸 간증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지만...”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세 자녀에게 항상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권유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그의 세 자녀 가운데 딸 샬롯(Charlotte)은 최근 'Where You Go : Life Lessons From My Father'(당신이 가는 곳: 나의 아버지로부터의 삶의 교훈)이라는 신간을 발표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펜스의 25세 딸 샬롯(Charlotte)은 최근 'Where You Go : Life Lessons From My Father'(당신이 가는 곳: 나의 아버지로부터의 삶의 교훈)이라는 신간을 발표했다.

이 책에는 아버지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그녀와 그녀의 형제들이 받았던 지혜로운 조언과 더불어 21세에 유학을 위해 머물렀던 영국에서 보낸 1년간 경험한 개인적인 믿음의 투쟁에 대해 다루고 있다. 펜스 부통령과 그의 아내 카렌은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공개되어 왔다. 샬롯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적인 부모 밑에서 매주 교회를 출석했지만 여전히 스스로 종교적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샬롯의 책에는 아버지 펜스 부통령의 신앙에 대해 소개돼 있다. 그는 자녀들에게 매주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했고, 때때로 새로운 교회를 찾는 공백이 있을 때에는 집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한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아버지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매일 필요한 3가지 일, 즉 기도와 예배, 연구 및 운동을 중시하게 주었다고 한다.

샬롯은 시카고에 위치한 드폴 대학(DePaul University) 3학년이 되던 해인 201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다. 옥스퍼드에서의 경험은 그녀가 가졌던 기독교적 신념과 전통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게 했다.

샬롯은 옥스퍼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갔다"면서 "종교와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기를 바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녀를 따라 오시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무신론에 관심이 있었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무신론은 나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 없이 방황했으며 옥스퍼드에서 보낸 시간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다. 무신론에 관심을 갖게 된 샬롯은 이 분야에서 많은 생각을 가진 리더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지냈다. 다른 유형의 사상에 관심이 있었던 그녀는 교회 출석을 끊었으며 더 이상 성경

도 읽지 않았다. 샬롯은 심지어 종교적인 친구들은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샬롯은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종교적인 부담 없이 살기를 원했다. 나는 내가 가진 질문이 사라지거나 언젠가 대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관심두지 않거나 불가지론(agnostic)자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신론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샬롯은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녀의 투쟁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부모님은 확실히 그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믿음에 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꺼이 이야기 할 의향이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녀 스스로 답을 찾을 필요성을 느꼈다.

샬롯은 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C.S.루이스와 알리스터 맥그라스와 같은 작가와 신학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영성에 대한 가장 영향력있는 경험은 옥스퍼드에서 수학 당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스라엘에있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였다. 샬롯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된 시간은 이스라엘에서였다고 믿는다. 그곳에서 믿음이 굳건해졌다"면서 "항상 믿음을 가졌지만 그곳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되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선 후에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샬롯은 현재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문학과 문화에서의 종교에 대한 신학 연구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이다.

샬롯 펜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싶다.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종종 믿음에 관련된 주제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종교에 대해 매우 궁금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초, 샬롯 펜스는 어린이 그림책 'Marlon Bundo's A Day in the Life of the Vice President'를 발표하고 대학에서 다큐멘터리 'Fleeced: Speaking Out Against Senior Financial Abuse'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이미경 기자

NYT “트럼프 행정부, 생물학적으로 성별 결정 고려”



©pixabay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불변의 조건'에 따라 성을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보건복지부의 내부 메모를 입수했으며 이 메모에는 정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행정적인 근거가 있는 생물학적 기초 위에서 성별에 대한 명시적이고 일관된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된 것

로 알려졌다. 또한 성에 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성별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정책을 펼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샀다.

성별 정의에 대한 이같은 새로운 결정은 앞으로 미국 주요 정부 기관의 정책 뿐만 아니라 외과적 방법 등을 동원해 성별을 결정할 약 140만명의 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이미경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shalom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골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트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내서 오병이외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평양선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 초, 중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전당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신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영아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 청년부 수요성경강화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6시 30분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영광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미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6:00pm
Artesia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터키, 브런슨 목사 석방 하루 만에 또 다른 미국인 선교사 추방

데이비드 바일 선교사, 노방전도로 수차례 체포



데이비드 바일(David Byle)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 ©오픈도어선교회

앤드류 브런슨(Andrew Brunson) 목사가 석방된 지 하루 만에 터키 당국이 또 다른 미국인 선교사를 체포, 심문한 뒤 추방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미들이스트컨선(Middle East Conern)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인 데이비드 바일(David Byle) 선교사가 13일 반테러 경찰국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심문을 당한 뒤 다음날 오후 풀려났으며, 15일 안으로 터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일 선교사와 가족들은 "우리는 터키를 비롯해 전 세계의 신앙인들이 보내주는 넘치는 사랑과 지지에 압도되고 있다.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혼자서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했다.

18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해 온 바일 선

교사는 과거에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수차례 체포됐었다. 2007년에는 3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그가 들고 있는 책이 이슬람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에는 체포되어 8일 동안 구금됐다.

당시 그는 강제로 추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테러조직의 이사가 회원, 지지자라는 증거를 찾지 못해 2017년 2월 이같은 추방 명령이 중단됐다. 미국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지수에서 터키는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픈도어즈는 "터키 정부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슬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쿠데타를 실패한 후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를 수니파 이슬람으로 통합하기 위해 정치적 불안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해진 기자

“우리가 포르노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이유”

XXX교회를 설립해 포르노 중독에 빠진 남성과 여성들을 돕고 있는 크레이그 그로스(Craig Gross) 목사가 포르노에 빠져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조언을 남겼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그로스 목사는 "정말 포르노를 안보려고 시도했으나, 여전히 이를 돌이키지 않고 있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포르노 중독과의 싸움에 대한 오해를 소개했다.

그로스 목사는 "살면서 이와 관련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배우자나 혹은 친구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에서 올바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 예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포르노 중독자들을 돕는데 있어서, 그로스 목사는 "사람들은 (포르노를 안 보겠다는) 맹세를 한다. 그리고 영상을 찾아서 보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모임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내적인 씨름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포르노 중독과 씨름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수박의 겉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당신은 실제로 컴퓨터를 치워본 적이 있는가? 만약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휴대폰을 없애는 것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눈을 뽑아내라고 말씀하기도 했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당신의 삶 속에 누군가 실제로 이에 대해 알고 있고, 매주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로스 목사는 "포르노는 쉽다. 이것은 선택의 마약이다. 값이 싸고 쉽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어디에나 있다. 포르노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도피이다.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지 대답할 수 있다면, 포르노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당신이 포르노를 볼 때,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라"고 조언했다.

XXX교회의 J.S 파크는 사람들이 맨 처음 포르노에 중독되는 놀라운 이유들을 공유했던 바 있다.

지난 2017년 그는 사람들이 포르노에 중독되는 이유 중 하나가 노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르노가 비현실적인 생명력의 영원한 스냅사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젊음을 잃었을 때 포르노를 이용하며 노화를 외면한다"고 했다.

영국 성인 절반 이상 “청소년들 스스로 성 결정해선 안돼”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선 안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코얼리션포매리지'(Coalition for Marriage)가 콤레스(ComRes)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정체성의 다양한 면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젊은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성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아이들이 스스로 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 정도였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스

스로 성별을 정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였고, 29%가 반대했다. 선택 사항의 경우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트랜스젠더들도 자신이 정의한 성별을 가지고 스포츠경기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가 동의했고, 34%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31%였다. '만약 자녀들이 트랜스젠더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20%가 '기쁠 것이다', 42%는 '기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0%는 '자녀들을 대할 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고, 38%는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최근에 저는 로널드 롤하이저가 쓴 《하나님의 불꽃, 인간의 불꽃》을 읽는 중에 이전에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 주어야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그런데 로널드 롤하이저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천히 읽어 보십시오.

“잠겨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셨다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아마도 신앙 전체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돕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나약하고 절망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한다.”(로널드 롤하이저, 『하나님의 불꽃, 인간의 불꽃』, 성바오로, 177쪽)

예수님은 낙심 중에 있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길이 끝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길이 끝나면』

이라는 시를 묵상해 보십시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곳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곳입니다. 거듭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거듭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는 거듭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 정기총회

다음과 같이 38회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 시간 : 2018년 10월 29일(월) 오후 6시
- 장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강당

후원이사 여러분들과 모든 동문들께서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

37회 임원회

회 장 : 민준기
부회장 : 최명환, 이미란
서 기 : 오충성
회 계 : 박종희
부서기 : 이명환
총 무 : 정효남

후원이사회

이사장 : 고영준
이 사
강신권, 고영준, 김정태, 김중용, 민준기, 박경희, 박종희, 박충기, 백경흠, 백정수, 서정일, 손태환, 우상림, 유미숙, 이미란, 이성희, 장문현, 전영훈, 최명환, 허만진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lumni Association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연락처: (213)215-0555(서기), (714)353-8501(총무), (714)588-1109(회장)



미스바

화요 여성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520 S. LAFAYETTE PARK PL#200
LA CA 90057 (LA 비전교회)
문정란 목사 | 213.344.6313

반주자 모집입니다



우리의 굵은 것조차 하나님께는 은혜가 된다

나는 어려서부터 연장을 만지며 간단한 것은 스스로 만드는 기쁨을 즐겨워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신에 노력과 땀방울이 담긴 물건에는 왠지 더 큰 관심과 애착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때때로 만들고자 의도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결과물을 보게 되면 사뭇 속상하게 생각된다. 특별히 과도한 힘을 주어 그 물건이 원하는 모양이 아닌 굵어 버려 포기해야 하는 경우 허탈함을 가지게 될 때가 많다. 왜냐하면 굵어 버린 것을 다시 펴서 사용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굵어 버린 물건은 곧 포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렇다 우리는 “굵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더 성숙한 존재로 변모하게 되는 것 같다.

잠시 동안은 그 굵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는 중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와 같음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

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다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그 굵은 것이 오히려 믿음, 소망, 사랑, 자기 부인, 그리고 인내, 은혜에 속한 모든 행사들을 유발시키는 도구가 된다. 그것이 아니면 오히려 생성되지 못했을 “하늘에 속한 것을 마음으로 사모함”이란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 내게 된다. 육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과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것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는 아주 값진 것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굵은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감사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에 감사하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

마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자의 히브리 이름은 레위(Levi)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의 사회에서 부유한 자이지만, 친로마 성향 때문에 항상 도덕적으로는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리의 이름은 “창녀”와 “죄인”과 붙어 다녔습니다(마 21:31-32, 눅 5:30). 세리는 일종의 죄인이고, 그들은 공동체에서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회

레위의 심정과 결단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즉각적인 결단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 신속한 결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의 즉각적 결단은 첫째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율오심에 대한 심정적인 정리가 이미 끝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아니면 금방 따라나설 수 없습니다. 용수철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튀어 오른 것은 인간을 차별하거나 계급적으로 나누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은 의욕적이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요청이었는데, 자신과 같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요청은 감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했고, 잃은 자가 되었던 주변의 세리를 모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예수님의 초청은 마태의 과거를 청산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마태는 자신을 의미 있는 “예수 운동”(Jesus Movement)에 투신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 운동은 천국 운동, 곧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 그리스도를 신앙하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족보로 시작하여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남과 활동하심과 돌아가심에 대한 기록을 마태복음으로 남깁니다. 마태 자신이 그 왕의 서기관으로 초청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캐나다광림교회(벤쿠버)에서

담임목사 청빙

자격요건

1. 감리교단에서 인정한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원(M Div.) 졸업
2. 이민 목회 또는 해외 선교사 경력 3년 이상
3. 감리교 소속 정회원 5년급 이상
4. 연령 만 55세 미만
5. 교회법, 사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목회 비전과 신앙간증서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소속교단 재직증명
6. 목사안수증
7. 추천서(목회자) 2개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2편 (동영상파일 or 음성파일)

제출처

서류 제출처:
15678 106A Ave Surrey, BC, V4N 1K4 청빙위원회 앞
Email: kmcsarang@gmail.com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5일(목)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Email: kmcsarang@gmail.com
Phone: 604-951-1414 / 604-813-5724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VALERO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기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TOP MEDIA www.TopmediaUSA.com
 SIGN & PRINTING 323.265.0244

Promotion Items Stickers & Label Package Design T-shirt Print Printing & Copy

Sign & Banner Trade Show Items Van Warp Truck Warp Food Truck Warp

TRUCK & VAN WRAPS
 BANNER & SIGN
 PRINTING & COPY
 TRADE SHOW ITEMS

[김영한 설교] 동성애 젠더주의 도전

살롬나비 제45회 월례포럼

아래 설교는 김영한 박사(살롬나비 상임대표)가 지난 10월 7일 서울 독산로 동산교회에서 있었던 살롬나비 제45회 월례포럼에서 설교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성경구절
창 2:16~17, 유 1:17~23

머리말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젠더(사회적 성)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ie)는 후기현대 이데올로기(유사 종교)로서 지구촌의 사회와 가정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우리의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성 여성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적 성(gender)만을 인정하며, 남자와 여자는 양성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제도, 가정,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녀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해체하고 있다.

I. 젠더주의의 역사적 배경

1. 네오-마르크시즘

비판이론(kritische Theorie)의 근거지인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er Schule)이다. 이 학파는 마르크스 사상과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 이론을 융합하여 네오마르크시즘을 만들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의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사회구조를 마르크시즘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던 것을 고민하던 유럽 공산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이다.

네오-마르크시즘이란, 공산주의가 쇠퇴하고 와해되면서 시대를 이끄는 사상이 되지 못하자, 마르크시즘의 분파로서 등장한 사상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을 표면적으로 내세운다. 이들이 주장하는 휴머니즘은 바로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정의, 소수자 인권보호 등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우기 때문에, 196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를 강타하여 시대를 이끄는 주류사상이 되고 있다. 동성애 인권운동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성 정치학'(sex-politics)에서 연유한다. 포스트모던 사상의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동성애 운동은 소수자 인권운동이란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자리를 잡았다. 네오-마르크시즘은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학 이론을 추종한다.

2.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오스트리아 출신의 반기독교적 유대인이요, 급진적인 정신분석가 빌헬름 라이히는 마르크스의 사회과학적 분석이 말하는 자본가 계급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력 억압과 착취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말하는 인간 리비도(libido, 성본능, 성충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억압과 통제라는 두 이론을 합성하여 "성정치"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는 전통적인 일부일체제와 성도덕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성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주장하였다. 라이히는 마르크스의 혁명사상에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 개념을 넣어 성 관념이나 도덕 윤리를 억압하는 기존의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개인의 성욕을 억누르는 사회적 제약을 해체하고, 성해방을 실천하는 성 정치학이론이다.

3. 프랑스 68혁명: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 아래 성 해방 문화혁명

1968년 5월에 소로본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프랑스 68혁명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아 구세대의 관습과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다. 68혁명은 이전의 자본가와 노동자, 제국주의와 식민지 등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넘어서서 일부일체제 가족제도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그리고 가정과 성별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다.

4. 주디트 버틀러: 퀴어이론 창시, 젠더학 도입

주디트 버틀러(1956-)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구자요 퀴어(Queer) 이론 창안가다. 생물학적인 성(sex) 구분은 잘못된 것이며, 후천적 학습에 의해 성이 결정 된다는 사회적 성(gender)을 주장. 섹스/젠더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의 성정치학에 도전. 섹스나 젠더 모두 철저히 문화적인 사건 주장.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한 모든 의무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는 전제 하에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시킨다. 여성없는 페미니즘의 가능성 제기.

5. 젠더 주류화 운동(성 평등운동)의 본부인 유엔(United Nation): 지구촌 성혁명 보급 센터

오늘날 젠더 주류화 운동(성 평등운동)은 유엔(United Nation)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1989년 이후

오늘의 유엔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젠더주의자로 장악되어 1948년 보편인권 선언을 한 창립시의 유엔과 다르다. 그러나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 단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세계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해온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의 이름을 단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II. 신학적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7가지 논거

1. 선악과는 인간 자유의 보호자: 하나님이 선과 악의 최종 결정자

성경의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고 명하시는 인간 자유의 보호자이시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창 3:2b-3).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인간은 자유를 상실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에 직면한다.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의 존귀성이 아니라 흠에서 그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한다: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7-19). 인간의 숙명이란 하나님에 의존하는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2.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 사이 이성애(異性愛)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창조질서에 어긋난다.

결혼제도는 인간이 만든 문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이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하나 창조질서는 보편적이며 영구적이다.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성립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 2:24).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 논의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생략하고 있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다.

3. 성경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본보기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창세기 19장 1-8절은 동성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기록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의 전형인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금기하시는 행위임을 드러내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베드로후서 2:6). 사도 유다도 소돔과 고모라 주민의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같이 해석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율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4. 동성애 행위란 신성한 가정과 인간 영성의 파괴다.

레위기의 두 구절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금령이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누구든지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을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영성에 있다.

인간에 있어서 영과 몸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하나님의 호흡)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산 존재(a living being)가 되었다. 이 영성은 성적 신성함으로도 표현된다. 성적 신성함이란 독신이든지, 이성(異性)인 짝인 반러자와의 한 몸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표현된다. 동성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가정의 신성함이 무너지는 것이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5. 사도 바울은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난다(역리, 逆理)고 정죄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시대에 있었던 동성애에 관하여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정죄하고 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6-27). 바울이 구절에서 성(性)질서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순리(順理)란 이성간의 관계를 말하며 역리란 동성간의 성관계를 말한다.

6. 동성애 문제는 결혼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문화적 문제가 아니다.

여성안수 문제는 문화적 문제이지만 동성애 문제는 결혼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교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동성애 문제는 사회를 존속케 하는 가정의 질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기독교인의 아디아포라(adiaphora, 비본질적인 것들)로서 개인의 자유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판넨베르크(Wohlfahrt Pannenberg)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주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동성애 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Christianity Today, November, 1996).

7. 동성애자들에게 진정한 인권 회복이란 탈동성애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이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침묵하며 시대적 조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가지고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의 인격에 대해서는 깊은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지니고 저들이 탐닉된 관습에서 치유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동성애자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된다. 단지 동성애 자체는 성경이 금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가증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사랑과 긍휼로써 저들을 동성애라는 불에서 끌어 내어 구원해야 한다.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NYTS는 1900년 뉴욕에 설립된 ATS정회원 학교 입니다.

등록마감일: 2018년 10월 31일

등록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Korean D. Min Program): 정원15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1차수업: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40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2차수업: 2019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 40시간
3차수업: 2019년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40시간
4차수업: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 40시간
5차수업: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18일(금) | 40시간
6차수업: 2021년 5월 31일(월) - 6월 4일(금) | 40시간

학위수여식: 2021년 6월 5일 ※6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주님께서 이 ‘실화’ 통해 드러내시려는 것 찾아...”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개봉 앞둔 추상미 감독



추상미 감독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공동으로 창조한 작품입니다.”

배우 추상미 씨가 고난을 통해 ‘킹덤 빌더(Kingdom Builder)’가 되어 돌아왔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소명을 갖고 연출가로 변신한 그녀는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개봉(10월 31일)을 앞두고 있다.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67년의 간극을 두고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소재로 한다. 1951년, 한국전쟁 중 북한은 고아 1,500명을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냈다. 폴란드 선생님들은 말도 통하지 않은 아이들의 상처를 사랑으로 품어줬고, 아이들도 그들을 선생님이 아닌 ‘마마, 파파’로 부르며 따랐다.

그러나 가족처럼 지낸지 8년만에,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이유로 1,500명 모두를 본국으로 송환시켜 버렸다. 추상미 감독은 우연히 접한 이 이야기를 추적하기 위해 폴란드로 날아갔다. 극영화를 찍기 위해 만난 탈북소녀 송이와 함께. 어렵사리 찾아낸 그 시절 ‘마마’와 ‘파파’들은, 60여년 전 떠나보낸 고아들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에게도 혹독했던 전쟁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상미 감독은 ‘상처입은 치유자’ 폴란드 선생님들의 ‘위대한 사랑’을 오롯이 담았다. 본지는 추상미 감독이 들려주는 영화와 신앙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배우에서 감독이 되셨는데요.

“연출 공부는 미리 시작했습니다. 배우 시절부터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아이가 갖고 싶어 작품을 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한 차례 유산을 하고는 연출 공부를 시작하려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단편 두 편을 만든 뒤 아이가 생겨 휴학을 했고, 장편영화 소재를 찾다가 산후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마라나타’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바로 오실 것 같진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 성취에 대한 욕망은 없어졌지만, 주님께서 내 정체성을 아시는데 그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이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술 감독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산후우울증은 관리가 안 되면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발전되는데, 제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꽃제비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처럼 생각돼 눈물을 흘렸습

니다. 그렇게 폴란드에 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는 그 집착이 세상 다른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세상 속 굶주린 아이들, 고통받았던 역사 속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우울증은 건강하게 극복했습니다. 송이도 저도, 촬영을 통해 치유의 여정을 겪었던 셈입니다. 태도 면에서는 배우일 땐 세상과 소통하기보다 분리되어서 저 자신과 제 내면에 집중하라고 고립된 느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되면서부터 세상의 이슈들과 사회적 문제들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뉴스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더라도 그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셨나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소재를 영화화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작품 속에 복음을 녹여내고자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기독교적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심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화라는 소명 아래 직접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렸고, 1주일도 안 돼 찾게 됐습니다. 탈북민이나 꽃제비 같은 소재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연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산후우울증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소명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작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실화’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하실지 고민했습니다. 2년간 편집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주신 말씀을 시나리오 쓴 노트에 기록했는데, 구약의 인물 브살렐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날 그 본문 말씀을 큐티를 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던(출 36:1)’ 브살렐을, 저는 지금의 ‘아티스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브살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



신 설계도를 통해 공고한 일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소명을 품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반영해서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통찰을 나누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반에는 저의 옛 자아에서 나오는 상상력으로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홀로 편집하는 2년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주간 오로지 찬양과 예배,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영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한 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향한 마음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브살렐에게 법궤의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작품의 전체적 구조와 아이디어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공동 창조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영화는 폴란드 사람들이 전쟁에서 받은 상처를 매개로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품고 그들의 엄마 아빠

가 되어줌으로써, 상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한국전쟁이나 분단 같은 역사적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65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성찰을 해왔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를 통해 증오를 유발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견고하게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화합, 공감과 이해 아닐까요. 우리도 각자 받은 시련과 상처가 타인에 대한 연민을 품게 만들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듯,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게 아닐까요. 실화를 통해 드러내시려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이웃들인 3만명을 넘어선 탈북민들을 폴란드 선생님들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작품을 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분열과 분리, 공감 부족으로 그러한 일들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1951년, 한국전쟁 중 북한은 고아 1,500명을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냈다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9301 Fax: (323)643-9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영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



그 시절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폴란드 선생님 ©커넥트픽처스 제공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반 관객들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침 불어닥친 태풍으로 관람 행사가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비바람을 뚫고 찾아온 몇 명의 관객들에게 인사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영화는 다 태풍 때문에 상영이 취소됐을 정도였다.

7명이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는 말에,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시사회장에는 무려 150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일반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는데, 중반 이후 울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북한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폴란드에 갔던 이야기를 했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있었고, “북한 고아들을 품어 주셔서 감사하다”던 다른 탈북민의 증언에 모든 관객들이 울음바다가 됐다.

얼마 전 기자 시사회까지 진행된 가운데, 민감한 소재일 수 있지만, 최근 남북 간 해빙 무드와 함께 늦었지만 준비해야 할 ‘통일’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와 맞물려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일반 언론들도 영화와 함께 꽃제비와 탈북 청소년, 그리고 감춰져 있던 폴란드의 선생님들 이야기 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꼈으면 하시는지요.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이 시대는 그들에게 과도기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것 같고, 경제부터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향한 준비를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통일’이고, 이를 위한 ‘마음의 연합’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여정에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통일’인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들이대고 죽었던 부분은 상식적으로 봐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용서와 화해와 십자가로 끌어안는 일들이 아마 통일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텐데, 지금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의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 교류는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물리적인 여러 교류들 역시 할 수 있지만, 서로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교류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물리적·경제적 통일이 먼저 이뤄지고 너무 빨리 간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전쟁의 상처를 경험하신, 자기 눈앞에서 부모와 형제가

죽어갔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시대가 변했으니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분들을 버리고 가는 분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통일을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좀 느긋하게, ‘여정’이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출발선에서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성찰해야 할 것을 돌아봤을 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초기, 그 역사의 상처가 우리를 갈라놓고 남한 사회도 갈라놓고 증오를 생산하고 이데올로기를 양산하고 프레임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이 상처가 남북한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겪은 ‘공통의 상처’가 바로 한국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과 역사의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를 통해 재조명되길 원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름다운 스토리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에게 상처와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지만 주변에 누가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고, 그 시련 가운데 진정성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상처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면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전쟁의 가장 비참한 결과물인 고아들을 돌보던 폴란드 선생님들, 남한의 많은 고아들을 입양한 푸른 눈의 엄마·아빠들, 이 세계인들이 우리의 전쟁을 수습했던 아름다운 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송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탈북민들은 가정이 무너진 경우가 많아 사랑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폴란드 선생님들은 북한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부지런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송이는 난생 처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한에 온 뒤 무시당한 일들과 탈북민임을 숨겨야 하는 것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있었지요. 지금은 저와 함께 ‘모자이크’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이와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모자이크’는 탈북 청년 연합이라까, 문화예술 콘텐츠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 5명과 함께했는데, 지금은 한 명이 유학을 가서 4명입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남한 청년들과도 함께하는데, 그들 역시 문화예술 콘텐츠와 치유사역을 주로 합니다. 각자 비전을 세우고 이 시대의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친목 도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성향이 있는 감독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제 정체성이라 불편함이 없지만, 작품에서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어서 하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분들이 시사회에서 많이들 우셨는데, 한 분은 ‘눈물이 나는데 왜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장치가 양심이라면, 그 양심에 자극이 온 것이지요. 세상을 향한 복음이 담긴 콘텐츠가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할리우드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향한 기독교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놓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받은 부르심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팀이 있을까요.

“영화 속 폴란드 선생님들은 굉장히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들이 북한 고아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사랑하게 된 데는 신앙적 이유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도처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과 넌크리스천들,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역사하시진 않으니까요. 일반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는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녹여내는 방법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그 스토리 자체에서 어떤 복음적 메시지를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통찰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김신의 기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이동원 목사 초청



말씀 잔치

초청합니다!

영원을 갈급하는 묵상의 계절,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기 위해 기쁜우리교회는 이동원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 잔치를 여오니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우리의 기쁨, 그리스도

일시: 11월 2일(금) ~ 4일(주일)

- 2일(금) 오후 7시: 생명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21절)
- 3일(토) 오전 6시: 모범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
오후 7시: 목표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14절)
- 4일(주일) 오전 9시, 11시: 풍성함이 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19절)

장소: 333 East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강사: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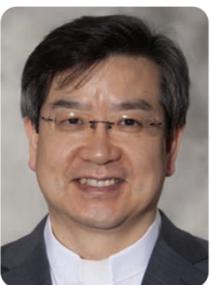
예배안내 WORSHIP INFO

주일예배	본당	1부	오전 7:0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영어예배	Recreation Center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Patriots Room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본당		오전 6:00

JCCC 아카데미	교육관	오전 10:15	오후 12:40
유치부	교육관	오전 11:00	
유년부	교육관	오전 11:00	
중고등부	교육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다용도실	오후 1:30	
청년부 금요모임	다용도실	오후 6:00	
사랑부(특수지역)	교육관	오전 8:45	
한국어학교	교육관	오전 10:00	



기쁜우리교회



교회 비전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오시는길



P 주차장
UCC 본당 옆에 있는 주차장에는 장애우와 노약자 및 새가족 등 주차 허가증을 받은 분들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Colorado 길 건너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 안내 담당자들의 안내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Website: www.joyfulccc.org
EM Website: www.joyfulcc.com
Email: joyfulCCC.office@gmail.com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전화번호: 818-662-0400 . Fax: 818-662-0800